

“설날 팬들에 골 선물 어때?”

설기현 (28·레딩FC·오른쪽)과 박지성 (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왼쪽)의 '설 맞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유와 레딩은 민족의 명절 설 새벽인 18일 오전 2시15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136년 전통의 잉글랜드 FA(축구협회)컵 16강전을 치른다. 박지성은 지난 11일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칠턴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터트리며 맹활약을 펼쳐 FA컵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맨유 박지성·레딩 설기현 18일 맞대결 가능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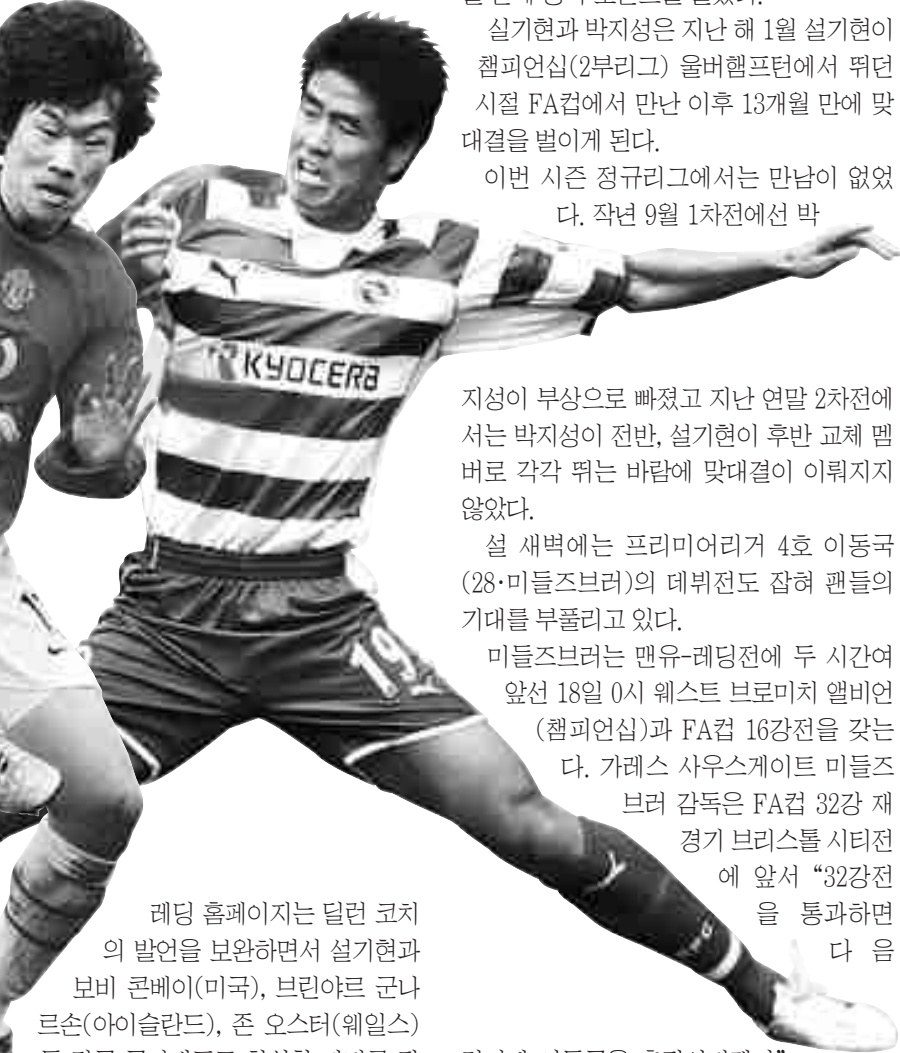
맨유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FA컵,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트레블(3관왕)을 목표로 잡아 레딩전도 중요하다.

문제는 설기현이다. 설기현은 11일 애스턴 빌라전에서도 엔트리에 들지 못해 정규리그 세 경기 연속 결장했다.

자신의 자리인 오른쪽 미드필더 경쟁에서 베테랑 글렌 리버에게 밀려난 분위기가.

그러나 설기현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들려왔다.

케빈 딜런 레딩 코치는 15일 레딩 구단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FA컵에 투입할 만한 요건을 갖춘 선수들이 있다. 우리는 (정규리그와 달리) 팀을 바꾸려고 한다. 그렇다고 전력이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지방이 부상으로 빠졌고 지난 연말 2차전에서는 박지성이 전반, 설기현이 후반 교체 멤버로 각각 뛰는 바람에 맞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설 새벽에는 프리미어리그 4호 이동국(28·미들즈브러)의 데뷔전도 잡혀 팬들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미들즈브러는 맨유-레딩전에 두 시간여 앞서 18일 0시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챔피언십)과 FA컵 16강전을 갖는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미들즈브러 감독은 FA컵 32강 재경기 브리스톨 시티전에 앞서 “32강전을 통과하면

레딩 홈페이지는 딜런 코치의 발언을 보완하면서 설기현과 인터뷰에서 “FA컵에 투입할 만한 요건을 갖춘 선수들이 있다. 우리는 (정규리그와 달리) 팀을 바꾸려고 한다. 그렇다고 전력이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딜런 코치는 “누가 출전하든 FA컵 출전

경기에 이동국을 출전시키겠다”고 못박았다. 여러 모로 기다리지는 설날 그믐 밤과 설 새벽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14

“우리도 뵈다”

“검도인 기상 확실히 보여줄 터”

■ 서석고·조선대·북구청 검도부

광주서석고, 조선대학교, 북구청등 광주를 대표하는 검도들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다짐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여타의 마라토너들이 들으면 패스죄에 해당할 정도의 호연장담이지만 이들의 면면을 보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서석고와 조선대, 북구청은 각각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다 올 시즌을 위해 겨울내 동계 훈련을 통해 체력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정신력·지구력 평소 단련

이들은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춘계대회부터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겨울을 땀방울과 함께 지냈다.

오전에는 체력훈련, 오후에는 서석고 체육관에서 합동훈련을 통해 전력을 배가시켰다. 이들이 이렇게 합동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석고 출신 선수들이 조선대와 북구청 검도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

기 때문이다. 조선대와 북구청등 서석고 졸업생들이 후배들과 함께 훈련하며 기술을 보완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의 부족한 점과 정신을 가다듬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체력훈련의 기본은 달리기. 순간 스피드와 순발력을 요구하는 검도는 특정한 하체와 지구력이 없으면 실력 향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5km달리기는 매일 하는 일상과 같다.

10km나 하프, 풀코스 출전해도 될 체력들이지만 춘계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어 후시라도 있을 부상 염려때문에 5km만 참가하기로 했다.

양진석 북구청 코치는 “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3·1절 대회에서 상위권을 형성하며 끝낼 것 같다”며 “발기운을 만끽하며 서석고 출신 검도인들의 잔치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석고는 정동진 감독을 중심으로 지난대회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3학년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올 시즌 최소 2관

왕을 노리고 있다. 조선대 검도부도 올 시즌 춘계연맹전등 각종 대회 상위권 입상을 노리고 있다. 북구청 검도팀은 그동안 팀내 내용을 훌훌 털어내고 안정을 찾아 전국최강의 전력을 전국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다.

“올 전국대회 상위권 목표”

전 국가대표 출신의 양진석 코치를 비롯해 2003년 세계대회 단체 준우승 주역이었던 김태호 주장, SBS 검도왕 출신 이진성, 지난해 세계대회 개인전 3위에 빛나는 오길현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박상수, 임동혁, 김현, 김동욱, 양상훈 선수등도 각종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경험을 갖고 있어 전력으로는 전국 어느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정동진 서석고 감독은 “북구청 검도팀이 2005년까지 내용을 겪었지만 지난해부터 정상화 돼 전국최강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며 “춘계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체전까지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서석고, 조선대, 북구청 검도팀 선수들이 3·1절전국마라톤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축구 올림픽 본선행 꿈꾸며...

남자-28일 예멘과 지역 2차 예선

여자-내일 인도와 지역 1차 예선

한국 남녀올림픽축구대표팀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필 베퍼백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남자 축구대표팀은 오는 28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예멘과 아시아 2차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한국과 한 차례도 상대해본 적이 없는 예멘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3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FIFA 44위)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 각국의 축구 수준이 많이 평준화하면서 북벌병들의 실력을 과소평가해 마음을 놓는 것은 급물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은 다음 달 14일 UAE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28일에는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승자와 홈 경기를 갖는다.

이에 앞서 안종관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 대표팀은 설 연휴 첫 날인 17일 낮 2시 경남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인도와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1차 예선 A조 홈 1차전을 치른다. 이후 대표팀은 25일(한국 시간) 인도로 날아가 원정 2차전을 소화한다.

아시아 지역에 걸려 있는 올림픽 본선 출전권은 2장인데 개최국 중국은 예선없이 본선에 나간다.

북한과 일본은 1차 예선 없이 최종예선에 직행하며 한국 등 13개팀은 3개 조로 나누어 1차예선을 치른 뒤 각 조 1~2위 팀이 최종예선에 진출한다.

최종 예선에서는 8개 팀이 2개 조로 나누어 ‘홀맨드어웨이’로 조별 풀리그를 치러 각 조 1위가 본선 진출권을 한 장씩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그동안 한 번도 올림픽 본선에 나간 적이 없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절감은 100%, 가격은 80%

◆ 배터리의 가치, 도대체 몇십배 이렇게 높아질까요?



배터리가 없어서 하루 생산라인이, 휴먼 발로 뛰는 수백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온 세계는 천천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우리의 모든 생산라인을, 모든 자동차를, 모든 기계장치들을 움직여 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좋으면, 생산라인이 빨리 돌아갑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나쁘면, 생산라인이 느려집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나쁘면,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나쁘면, 배터리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 배터리의 가치, 그뿐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배터리가 없어서 하루 생산라인이, 휴먼 발로 뛰는 수백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온 세계는 천천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우리의 모든 생산라인을, 모든 자동차를, 모든 기계장치들을 움직여 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좋으면, 생산라인이 빨리 돌아갑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나쁘면, 생산라인이 느려집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나쁘면,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배터리의 성능이 나쁘면, 배터리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0213664-1066

방수 살마습 쉬운 고어텍스 방수제

드림 다목적 특수 방수제

어떻게 방수로 고어텍스 방수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3000 원 이하의 방수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수로 고어텍스 방수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3000 원 이하의 방수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수제의 가치, 도대체 몇십배 이렇게 높아질까요?

방수제가 없어서 하루 생산라인이, 휴먼 발로 뛰는 수백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온 세계는 천천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수제는 우리의 모든 생산라인을, 모든 자동차를, 모든 기계장치들을 움직여 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방수제의 성능이 좋으면, 생산라인이 빨리 돌아갑니다. 방수제의 성능이 나쁘면, 생산라인이 느려집니다. 방수제의 성능이 나쁘면, 방수제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방수제의 성능이 나쁘면, 방수제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방수제의 가치, 그뿐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방수제가 없어서 하루 생산라인이, 휴먼 발로 뛰는 수백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온 세계는 천천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수제는 우리의 모든 생산라인을, 모든 자동차를, 모든 기계장치들을 움직여 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방수제의 성능이 좋으면, 생산라인이 빨리 돌아갑니다. 방수제의 성능이 나쁘면, 생산라인이 느려집니다. 방수제의 성능이 나쁘면, 방수제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방수제의 성능이 나쁘면, 방수제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0213664-1066